무주농협 곽동열 조합장은 "지난해 성과를 거울삼아 2017년에도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해 해외 시장 개척으로 농가소득 창출은 물론 8,428명의 조합원과 준조합원 등 무주농협이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무주농협은 세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을 반드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편집자 주

사과·천마 수출 농가 어려움 해소
지역 상품화 비용 농가에 적극 지원

무주농협은 지난해 기후 변화, AI, 농산물가격 하락, 각국과 FTA로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두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무주농협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 안하면서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동반 성장했으며, 지난해 말 무주농협 총자산은 2,117억4,000만원을 달성하고, 당기순수익은 10억4,700만원을 달성해 2년 연속 10억이상 당기순손익을 올릴 정도로 성장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무주농협은 과거 침체되고 어려운 농협에서 이젠 우수한 농협, 선진농협으로 발전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는 전임직원과 농민조합원이 협동과 단결로 이뤄낸 결과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전라북도 1등 농협, 더 나아가 대한민국 1등 농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무주농협 관할구역은 1읍 3면으로 되어있으며, 조합원은 남 3,073명 여 1,233명 총 4,306명이며, 준조합원은 4,12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조합원 조직으로는 마을영농회, 부녀회, 대의원, 작목반, 농가주부모임, 운영평가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주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업 등을 보면 ▲구매사업 112억, ▲마트사업 146억, ▲퇴비사업 20억, ▲판매사업 156억 등의 실적을 올렸으며, ▲신용사업은 예금 1561억4,400만원, ▲상호금융대출금 808억3,000만원으로 예대비율 51.8%를 달성했다.

무주농협은 2017년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사과, 천마, 쌀을 적극 수출해 사과농가와 천마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아래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무주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 수혜액과 무주군의 상품화 비용을 농가에 적극 지원해 농가 부담은 줄고, 농가소득을 올릴 추가 혜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농협은 2017년에도 농산물 순회 수집을 확대해 농민은 편하게 농사짓고, 농협은 농산물을 판매해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인터뷰 - 곽동열 무주농협 조합장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관심, 지역농협 이익 증대로 이어져"

"무주농협 성장과 발전은 조합원들의 적극 이용과 참여가 좌우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열 무주농협 조합장은 "농협사업에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와 이용으로 2016년도 큰 성과를 거뒀다"며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와 관심이 무주농협의 발전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곽 조합장은 "무주농협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 끝에 2010년부터 조합원을 위한 경제 사업으로 전환해 농자재 공급 및 농산물판매에 이르기까지 경제사업 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곽 조합장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판매사업 중 농산물 공동선별을 통해 참여 농가와 물량 실적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계통출하로 이익을 증대시켰다"며 "농산물 소량생산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 집하장을 운영해 농가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곽 조합장은 "무주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신 유통시장인 홍콩, 베트남, 필리핀 등을 개척해 사과, 포도, 쌀 등을 수출해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큰 성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무주농협은 2016년도에 조합원자녀 25명에게 장학금을 2,500만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으로 69농가에 4,000만원을 지원 했으며, 2017년도에는 조합원자녀 30명에게 3,000만원, 취약농가 인력지원으로 80농가에 4,800만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곽 조합장은 "장학사업은 무주농협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한 조합원자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동량을 기대하고 있다"며 "장학금 지원학생이 사회에 진출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훌륭한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다.

무주농협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등에 2016년에는 121농가에 8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39농가에 1,100만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곽 조합장은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통하여 사고·질병농가 등에 영농도우미를 적극 지원해 영농대행을 하고 있다"며 "농촌 지역 고령·취약가구에는 행복 나눔이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조합장은 "무주농협은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이용 없이는 불가능 한 일이다"며 "비료 1포, 농약 1병, 라면 1봉이라도 농협을 적극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은 조합원을 위한 이용에 따른 고배당, 조합원자녀 장학금, 재해지원, 복지지원 등 환원사업으로 조합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농협을 적극 이용할 때 그에 따른 이익이 증대로 이어져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당부했다.